

김상훈 “포수 자질은 공·수 겸비 변화 적응하는 멘탈”



김여울 기자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키워드 정해주며 집중 훈련

4인 평균 21.3세 'KIA 미래'

“질보다 양”으로 포수를 육성하는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포수들을 훈련하고 있는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마무리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코치는 “포수는 기본적인 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훈련부터 마음가짐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질보다는 양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지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훈련도 타이트하게 하고, 작은 틈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습관, 생각 기르게 하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포수 4명의 평균 연령은 21.3세. 1994년생 한승택이 포수조 ‘말핵’이고 박정우(1996년생), 신범수(1998년생), 한준수(1999년생)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신 있게 투수와 호흡을 맞추고, 경기를 끝까지 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4명의 포수는 각기 다른 개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1군에서 가장 많이 뛰 한승택은 ‘공격’, 타격 재능을 과시한 신범수는 ‘수비’, 군에서 돌아온 박정우는 ‘변화와 적응’ 그리고 막내 한준수는 ‘마음가짐’에 집중하고 있다.

김 코치는 “한승택은 수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다. 타격에 비중을 두고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비는 기본적인 부분,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며 “도루 성공률이 높지만 더 높일 수 있는 선수다. 민첩성과 어깨가 좋지만 서두르다 보니 정확하게 캐치가 안 돼서 악수구가 되는 모습이었다. 정확한 캐치와 송구 동작을 매끄럽게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코치의 이야기대로 한승택은 타격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캠프 마지막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승택은 “캠프 와서 살을 췌했다. 처음에는 훈련이 힘들었는데 방망이를 많이 치고, 빠른 티도 많이 하다 보니 예전보다 배트 스피드가 붙은 게 느껴진다. 코치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주신다”며 “울 시즌 잘 맞을 때 느낌을 기억하면서 그걸 살리려고 연습했다”고 말했다.

마음은 이미 2019시즌으로 가 있다. 더 좋은 시즌,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한승택의 각오다.

한승택은 “내년은 항상 생각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도루 저지는 2017년보다 괜찮았는데 투수와 호흡을 맞췄을 때 부족했는데, 평균 자책점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며 “타격적인 부분이 좋아졌지만 1군에서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KIA 타이거즈의 김상훈 배터리 코치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한승택(오른쪽부터), 한준수, 신범수, 박정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승택-공격

다이어트로 살 빼고 스피드 UP
투수와 호흡·평균 자책점 주력

서 더 노력해야 한다. 쉬는 기간에도 꾸준히 연습 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1군에 데뷔해 아무진 타격 실력을 보여 준 신범수는 ‘수비’를 먼저 이야기한다. 인내도 배우고 있다.

김 코치는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의욕이 너무 강하다. 기술적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결과를 내려고 하니가 잘 안 될 때 좌절하기도 한다. 포수는 모든 걸 금방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만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며 “포수로서는 민첩함과 스피드가 있다. 캠프에서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신범수는 김 코치의 이야기대로 너무 잘하려는 마음을 털고 자신의 야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범수는 “잘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었는데

신범수-수비

민첩성·스피드 타고난 장점
포구 기본기 다지며 안정감 훈련

이런 부분을 줄이고 내 야구를 찾아서 차분하게 하고 있다. 또 캠프에 (최)원준이와 (류)승현 등 친 구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며 “수비에 신경 많이 썼다. 코치님도 방망이보다 수비에 신경을 쓰라고 하셨다. 포구 기본기부터 다지고 있다. 안정적인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준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신경쓰고 있다.

김 코치는 “야구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파워도 있고, 유연성도 좋아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발전한다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며 자세를 강조했다. 한준수가 언급한 목표 역시 ‘마음가짐’이었다. 한준수는 “마무리캠프는 처음인데 적응도 안 되

박정우-변화와 적응

군대 간 2년 공백 지우기 관건
공격력 살리려 1루·외야 자청

고 초반에 힘들었다”면서도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스프링캠프 때와는 달리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생각이다. 올 시즌이 너무 빨리 갔고, 시간이 간 게 아깝다. 이제 휴식기에는 못 배우니까 잘 배우야 한다. 이곳에서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다. 옆에서 선배들이 편하게 대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배우는 캠프다”고 이야기했다.

지난가를 해병대에서 제대한 박정우는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년간 그라운드를 떠나있으면서 많은 게 낯설어진 만큼 차근차근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는 방망이 재능을 살리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1루와 외야에도 나가고 있다.

김 코치는 “방망이가 좋은 선수인데 어깨도 많이 아팠고, 공백기 동안 하체 민첩성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방망이를 살리기

한준수-마음가짐

파워·유연성 등 성장가능성 커
늘 배우는 자세...기술부분 보완

위해서 포지션 변동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수가 납득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방망이에 자신 있는 박정우는 스스럼없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박정우는 “오랜만에 야구를 해서 감잡는 게 어렵다. 타이밍도 안 맞고 공이 정말 빨라 보인다. 그 래도 바로 잘 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옆에서 격려해주시다. 시간을 가지고 이번 겨울을 보낼 생각이다”며 “타격에 신경 쓰고 있다. 훈련에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내 장점인 타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지션을 해야 기회가 온다. 어깨가 아파서 오랜 시간 운동을 잘 못 했다. 일단 안 다치고 무사히 귀국하는 게 1차 목표다”고 각오를 말했다. /wool@kwangju.co.kr

‘테니스 스타’ 정현

UAE 챔피언십·日 니시포드 드림 대회 초청 출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이 외국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에 연달아 초대받으며 기량과 상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정현은 12월 27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정규 투어 대회는 아니지만 해마다 연말에 세계 상위 랭커들을 초청해 치르는 수준급 초청 대회다.

2009년 1월에 처음 열린 무바달라 대회는 그동안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네 번 우승했고,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역시 세 차례 정상에 올랐다. 또 조코비치, 나달,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4’로 불리는 앤디 머리(260위·영국)도 2009년과 2015년 우승했다.

특히 나달과 조코비치는 이 대회 ‘단골손님’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무바달라 챔피언십을 통해 1월 열리는 호주오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도 나달, 조코비치를 비롯해 정현, 지난해 우승자 앤더슨, 도미니크 팀(8위·오스트리아), 카렌 하차노프(11위·러시아) 등 6명이 출전한다.

정현은 또 25일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니시포드 드림 테니스 행사에도 초대됐다.

이 행사에는 니시코리 게이(9위), 대니얼 타로(78위·이상 일본)가 정현과 함께 출전하고 올해 US오픈 여자단식 우승자 오사카 나옴이(5위)도 나온다.

니시코리와 오사카가 한 조를 이루고 정현은 나라 구루미(165위·일본)와 팀을 구성해 치르는 혼합 복식 경기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 男골프 월드컵 첫날 공동 선두

안병훈·김시우조 10언더파 62타

안병훈과 김시우가 제59회 골프 월드컵(총상금 700만 달러) 첫날 공동 선두에 올랐다.

안병훈과 김시우가 팀을 이룬 우리나라는 22일 호주 멜버른 메트로폴리탄 골프클럽(파72-7170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10언더파 62타를 쳤다.

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팀의 점수로 삼는 베스트볼 방식으로 열린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이글 1개와 버디 9개, 보기 1개를 기록했다.

티펄 해턴과 이언 풀터가 팀을 이룬 잉글랜드, 마크 리슈먼과 캐머런 스미스가 한 조로 출전한 홈 코스의 호주가 한국과 함께 공동 1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이 대회에는 28개국에서 선수 2명씩 팀을 이뤄



안병훈

김시우

출전했으며 1, 3라운드는 베스트볼 방식, 2, 4라운드는 두 명이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말레이시아와 벨기에, 덴마크가 나란히 9언더파 63타, 공동 4위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예고했다. 한국의 이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2002년 일본 대회에 최경주(48)와 허석호(45)가 출전해 기록한 공동 3위다. /연합뉴스